

가시와데노오미 씨족의 진출

개요

와카사와 국가 수도의 상업적 및 정치적 관계는 8세기 이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시기 전에 조정은 이미 와카사의 천연자원과 일본해 연안의 전략적 위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. 이 지역을 통치하는 유력한 씨족은 천황이나 조정에 식재료(특히 해산물)를 공급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. 조정에 공식적으로 식재료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씨족은 가시와데노오미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.

상세 정보

군정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와카사의 유력 씨족

7세기 후반 무렵, 와카사 지역은 현재의 나라현에 위치한 야마토 조정의 관할 하에 놓였습니다. 와카사는 일본해 쪽 지역 중 수도에 가장 가까워 해산물의 이상적인 공급원으로 꼽혔습니다.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을 지배하던 유력한 씨족들은 와카사에서 조정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관리로 임명되었고, 공식적으로 가시와데노오미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그 후 수세기에 걸쳐 수도(나라 및 이후의 교토)와의 관계는 무역로 망과 와카사에서 나는 풍부한 해산물의 높은 수요로 인해 발전하며 강화되었습니다.

고분과 가시와데노오미 씨족

가시와데노오미 일족은 와카사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의 일부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됩니다. 이 일족은 귀족이나 씨족 지도자, 그 외 강력한 인물을 위해 고분이 만들어진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와카사의 고분 발굴로 이 지역이 수도와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무역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부장품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 부장품들은 희귀하고 가치있는 지위의 상징으로 고분이 가시와데노오미 씨족 등 도읍지와 관련이 있는 중요 인물들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.

전시품

전시에서는 가시와데노오미 씨족과 와카사 지역에서의 그들의 활동에 관련된 유물 및 역사적 문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. 와카사에 있는 여러 고분 중 하나인 니시즈카 고분 매장실에서 출토된 부장품의 복제품으로는 장식된 거울, 은종, 금동제 띠 장식, 금귀걸이 등이 있습니다. 점토 파편은 옛날 고분 바깥쪽에 나란히 놓여있던 의식용구 하니와(埴輪)의 일부입니다.

전시되어 있는 문서는 에도 시대(1603년~1867년)의 선대구사본기와 일본서기의 복각판으로, 가시와테노오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선대구사본기 제 10 권에는 씨족의 조상 사시로메노미코토의 아들이었던 아라토노미코토(荒礪命)가 5 세기에 와카사 지역을 통치하도록 임명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.